

남해화학, 대리점 110여곳 일방 해지 논란

기업측 “농민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비료 유통 구조 축소”

점주들 “수십년 삶 터전 빼앗아 지역농협 챙기나” 시위

“농민들과 어울려 막걸리 마시고 연말이면 달력·장갑·토시 등을 나눠주며 30년 동안 영업해 고객을 확보했는데, 하루아침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삶의 터전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비료업체인 남해화학이 수십년간 거래했던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전국 대리점 사장들은 “남해화학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남해화학 여수 본사를 향한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남해화학 비료대리점 대표들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지난달 21일 전국의 대리점 110여곳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래약정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 문서에는 “대리점과 회사 간 체결한 거래약정서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며 “이후 채권채무 등 정리 절차는 다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돼 올해 1월 1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다.

남해화학은 전남지역 23곳을 비롯해 전국에 110여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남해화학은 각 대리점과 1년 거래약정

을 맺었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왔다. 이렇게 재계약을 한 세월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넘는다. 당연히 올해도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 대리점에서는 농민들에게 새해 달력을 배포하고 장갑·토시 등을 제공하는 등 변함없이 마케팅을 했다.

하지만 남해화학은 계약만료 10일을 앞두고 계약만료 통보를 했고, 대리점 대표들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리점 대표 김모씨는 “대리점을 시작할 때는 점유율 10% 미만이었는데 각 대리점주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50% 이상으로 점유율을 높였다. 일부지역은 70% 이상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곳도 있다”면서 “이런 대리점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나니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농협에서 대리점 무용론을 제기해 대리점 계약해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남해화학-대리점-지역농협-농민’으로 이어지는 4단



23일 남해화학 대리점 사장들이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본사 앞에서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리점 측 제공>

계 유통구조를 ‘남해화학-지역농협-농민’으로 1단계 줄임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리점 대표들은 “농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료가격은 정찰가로 포대당 1만원 가량이다. 이는 정찰가인 탓에 유통구조와 관계없이 농민들은 무조건 1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한 대리점 대표는 “대리점에 주는 1포대당 수수료 100원을 줄여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협이 이를 챙기겠다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남해화학은 그동안 대리점에 판매수료로 1포대당 100원을 지급해왔다. 대리점별로 연간 평균 20만~30만포대 거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리점당 2000만~3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남해화학으로부터 받아 온 셈이다. 대리점 대표들은 이 수수료를 받아 농민들에게 비료를 배송하고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산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해화학은 농협경제지주(주)가 지분 56%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 자회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雪雪雪...출근길 교통정체 큰 불편

광주·전남 최고 16cm 눈

항공기·선박 결항 잇따라

23일 오전 광주·전남에 최고 16cm의 눈이 쌓이면서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다. 광주 시내 주요 도로에서 새벽부터 제설작업이 이뤄졌지만 눈이 얼어붙으며 곳곳에서 지체와 정체 발생,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나흘째 눈이 내리면서 광주와 무안·영광·함평·장성 등 광주·전남지역 6곳에 발효되었던 대설주의보가 23일 오전 10시 해제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전남 평균 적설량은 2.5cm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설량은 영광 15cm, 나주 13.5cm, 장성 9.8cm, 광주 8.3cm, 담양 8cm, 함평 6.5cm, 화순 4.5cm 등을 기록했다.

이번 눈으로 광주공항에서 김포를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기 4편이 결항했으며 제주행 항공편은 정상 운항 중이고

무안·여수 공항의 국내의 항공편도 정상 운항 중이다. 또한, 목포·여수·완도 등을 오가는 배 31척의 운항이 중지됐고, 21개의 항로가 통제됐다. 무등산·내장산(백양사) 등 2개 국립공원 83개 탐방로도 통제됐다.

눈이 이어지면서 국민안전처는 광주, 전남북 지역 210개 노선에 인력 655명, 장비 247대를 투입해 제설작업 실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새벽부터 478개 노선, 597km 구간에 제설작업을 했고 전남도 역시 고속도로와 국도 등 108개 노선, 1955km 구간에 제설작업을 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나흘째 눈이 내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39 건의 크고 작은 눈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관계자는 “아직까지 눈이 쌓인 곳이 많고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많은 만큼 차량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ej621@kwangju.co.kr

설 택배 조회 빙자 문자결제 사기 주의보

설 명절을 전후로 택배 배송 조회, 설 선물 확인 등을 빙자한 신종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면서 경찰이 인터넷·문자 결제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인터넷사기·문자결제 사기에 대한 중점 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설 전후로 선물 택배(반송) 확인, 설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문자 결제 사기가 발생하면서다. 주요 수법은 설 인사를 담은 문자에 악성 코드가 있는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가로채가는 방식이다.

최근 문자결제 사기는 소액결제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하면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설 상품권, 공연 예매권, 숙박권에 대

해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돈을 입금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는 사기도 설 명절 전후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설 전후 2주간(2016년 2월1일~2월15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명절 관련 인터넷 사기 신고는 356건에 달할 정도다. 주요 피해는 상품권 사기 292건, 공연 예매권 54건, 숙박권 10건이다.

주요 피해 수법으로는 유명 포털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대형 마트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만 가로채거나, 아이돌 가수 공연 티켓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띄워 입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시 계좌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링크된 인터넷 주소 클릭은 조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돈 들고 못 튀게...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인출책 여권 보관



○...조선족 보이스 피싱 절도책이 조직을

배신하고 중간에서 훔친 돈을 빼돌려 도망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여권을 빼앗아 관리해온 20대 조선족 중간관리책 2명이 철창 신세.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중간관리책인 조선족 오모(25)씨와 신모(24)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시에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주택에서 이

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현금 1590만원을 훔친 조선족 리모(23)씨의 여권을 사전에 빼앗아 관리한 혐의.

○...경찰은 “예금한 돈을 찾아 냉장고에 두지 않으면 은행 예금을 잃게 된다”는 수법으로 돈을 훔친 리씨에게서 “중간관리책들이 돈을 빼돌려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내 여권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추적·검거.

/전문기자 eej621@kwangju.co.kr

도의회 사무실에서 공무원 숨져

23일 오전 8시10분께 무안군 전남도의회 한 사무실에서 공무원 김모(52·6급)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청사 내 시설 공사를 위해 지난 22일 오전 11시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가족과의 통화에서 “눈이 많이 와서 사무실에서 일한 뒤 자고 들어가겠다”는 전화를 남겼다.

경찰은 “시신에서 외상이나 범죄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직장 생활에서도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보조급 부당수령 2명 징역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보조급을 부당 수령하고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영여조 합법인 대표 S(69)씨와 사업 위탁을 받은 고수 P(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부적격 사업이 보조급 지급 사업으로 선정돼 24억원 가량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조선대 온 중국 고교생들 “태권도 발차기 배워요”



겨울방학을 맞아 조선대학교를 방문한 중국 고등학교생들이 23일 오후 체육대학 지하 태권도 실습실에서 발차기를 익히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을 찾은 이들은 한국어, 한복체험 등 한국문화를 체험한 후 25일 돌아갈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우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기타,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2시30분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